

# ‘소살소살 혼불 토크아보기 || ’ 완료

## 전북 관광두레 PD·주민사업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교육·컨설팅·활동비 등 지원

### 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 ‘혼불’ 열 권 읽기 성공 ‘혼불완독지기’ 13명 탄생

최명희문학관과 혼불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소살소살 혼불 토크아보기’를 통해 ‘혼불’ 열 권 읽기에 성공한 13명의 ‘혼불완독지기’가 탄생했다.

이에 따르면 이 행사의 올해 참가자는 모두 34명이다. 이 중 13명의 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열 권을 모두 읽어 혼불완독증을 받았다. 이들은 3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각 권의 특징을 주제로 이진숙 수필가의 강연을 듣고 감상을 나눴으며, 꽃갈피 만들기, 편지 쓰기, ‘혼불’ 속 화가투놀이, 전주문화기행 등 열한 번의 강의와 체험 행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수강생 문선아 씨는 “책을 읽고, 수업 듣고,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 사이에 ‘혼불’이 인생의 동반자



최명희문학관과 혼불기념사업회가 마련한 ‘소살소살 혼불 토크아보기’를 통해 ‘혼불’ 열 권 읽기에 성공한 13명의 ‘혼불완독지기’가 탄생했다.

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수 씨는 “‘혼불’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든 책”이라며 “4개월 동안 같은 책을 읽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웠고, 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최명희문학관 이수민 학예사는 “수강생들은 매시간 간절한 소망,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깨달음, 생생한 인물들, 아름다운 문장, 역사 지식 쌓기,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 인간과 가문의 골매, 한국 여성의 삶 등 다양한 화두로 생각을 나누면서 책에 밑줄을 그었다”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은 나를 다스리며 나와 우리의 존재를 한층 올려준 박찬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혼불’의 완독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이 행사는 올해까지 15년 동안 440여 명의 ‘혼불’ 완독자를 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7일까지 ‘2023 전북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할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를 주축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재단은 공모를 통해 관광두레 사업과 연계한 전북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와 관광두레 PD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두레 사업에 기선정된 4개 시·군(전주시, 완주군, 고창군, 임실군)을 제외한 10개 기초지자체(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에서 활동할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다.

또 주민사업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여행사, 숙박, 체험, 식음료,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 사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광두레 PD는 예비 주민사업체 발굴과 기

존 주민사업체 육성 등 재단과 주민사업체 간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북 관광두레 PD 10명과 함께 주민사업체 8개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PD에게는 교육, 컨설팅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소정의 활동비(월 90만원)를 지원한다.

선발된 주민사업체에게는 사업 성장 교육, 창업 컨설팅, 사업 고도화 지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관광사업체는 지원금을 경영 교육, 법률·회계 자문, 우수 사업체 견학, 시범(파일럿)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 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 공모에 신청하려면 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 강준석 관광콘텐츠팀장은 “전북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도형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 관광을 이끌어 갈 전북도민과 주민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호남지역 근현대 사료 조사·수집 논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지역 사료 전문가 간담회 가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5일 한지산업관에서 지역 사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은 지난 5일 한지산업관에서 지역 사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K+연구단은 2018년 출범 이래 근현대 유교 단체 관련 자료 및 근현대 향교 생산 자료와 유림들의 개인 문집을 조사하고 수집해 왔다.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 사료 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료 전문가들과 지역 사료 조사·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다시 구축하고, 지역 근현대 자료조사에 대한 협조와 자문을 얻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지역 사료 조사위원과 HK+연구단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호남지역 근현대 사료 조사·수집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사료 조사위원들은 호남지역에서의 관련 자료 수집·정리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연구단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한문 자료의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 지역 사료로서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손실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과 연계해 사료의 검수와 자문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HK+연구단 변주승 단장은 지역사 연구의 확장 및 새롭게 발굴된 자료에 대한 자문과 협동 연구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 도킵텍프로젝트, 창작공간 입주작가 5명 선정

(재)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3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킵텍 프로젝트협동조합(이사장 김형준, 이하 도킵텍 프로젝트)이 5명의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민간

이 운영하는 창작공간을 지원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공간 활성화,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거주형에 2개 단체, 비거주형에 1개 단체가 선정됐다.

비거주형에 선정된 도킵텍프로젝트는 2017년에 설립된 단체로, 도내에서 영화제작, 배급, 상영을 하고 있다.

한편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한 도킵텍프로젝트는 12월까지 입주 작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3회, 퍼블릭 프로그램 3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민들을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에는 작가와의 대화(7월), 제작영화 시사회(11월)가 예정돼 있다. /장은성 기자

##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군산시예술의전당, 세계 최고 아동 도서 일러스트 작품 만날 수 있어

군산시예술의전당은 오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33일간 제2·3전시실에서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가치상’을 받은 작품의 일러스트(50여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에릭 칼(Eric Carle), 엘라 마리(Lela Mari)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언어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특히, AR 동화책 체험, 신비한 일루미네이처 등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존과 ‘내꿈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작품 도안을 직접 색칠해 볼 수 있는 흥미롭고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전시장 곳곳에 작품과 관련된 동화책을 배치해 다양한 동화책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 할 예정이다.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체험 프로그램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슨트(전시해설사)를 배치하고 무료로 운영된다.

이현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최고의 아동도서 일러스트



작품도 만나보고,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